

## 안흥면(安興面)

### [위 치]

안흥면은 동쪽으로 평창군 방림면, 서쪽으로 우천면, 남쪽으로 강림면, 북쪽으로 둔내면과 각각 접해 있다.

### [연 혁]

본래 실미원(實美院)의 이름을 따서 실미면(實美面)이라 하였다가, 그 후에 정곡(井谷)의 이름을 따라 정곡면(井谷面)으로 고쳐서 산전(山田), 가좌(佳佐), 정금(鼎金), 궁종(弓宗), 대미원(大美院), 소사비(所思碑), 실미(實味), 지구(池邱), 안흥(安興), 상안흥(上安興)의 10개 리를 관할하다가, 1916년 군면 폐합에 의하여, 상대미원, 중대미원, 하대미원, 상가좌곡, 하가좌곡, 상산전, 하산전, 정금, 상안흥, 하안흥, 가리천(佳里川), 용둔(龍屯)의 17개 리로 개편하고, 1937년 4월 1일에 안흥역(安興驛)의 이름을 따서 안흥면으로 고쳤으며, 1953년 12월 정금리에 출장소를 설치하고, 1963년 1월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영월군(寧越郡) 수주면(水周面)의 강림리(講林里), 부곡리(釜谷里), 월현리(月峴里)를 본 면에 병합하고, 그 중심지인 강림리에 출장소를 설치하였다. 이후 1973년 7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정금출장소 관할 상대미원리, 중대미원리, 하대미원리, 상가좌곡리, 하가좌곡리, 상산전리, 하산전리, 정금리, 용둔리 등 9개 리를 우천면(隅川面)에, 궁종리가 둔내면(屯內面)에 각각 편입되고, 둔내면 영랑리(永浪里)의 일부인 양지말과 하영을 성산리(城山里)로 개칭하여 안흥면에 편입 하였다. 1989년 1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우천면 오원리(烏院里) 일부인 새터가 안흥면 안흥2리로 편입되고, 1989년 4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강림출장소가 강림면으로 승격함에 따라 강림출장소 관할 강림 1,2,3,4,5리와 부곡 1,2리 그리고 월현 1,2리 등 9개 리가 강림면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가천리(佳川里)

마을이 주천강(酒泉江)가에 있으므로 가이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밤나무골, 안터, 황성말을 병합하여 가리천리(佳里川里)라 하다가, 1937년 가천리로 고쳤다.

**금정골** [골]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금을 캐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당거리** [터] 마을 앞 도로 옆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도둑막개** [터] 현재 도로 옆으로 고개가 있었는데, 예전에 이 곳에 도둑이 자주 나타나서 그것을 막는 초소가 설치된 관계로 붙여진 이름이다.

**도둑막고개** [고개] 도둑막개가 있던 고개를 가리킨다. 현재 도로 옆이 된다.

**둔내앞강** [강] 마을 앞에 흐르는 주천강을 달리 부르는 것으로, 물이 둔내에서 내려오고 마을 앞에 흐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골짜기가 마을 뒤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바른골** [골]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로, 평평하고 넓으며 바르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밤나무골** [마을] 사향봉 앞에 있는 마을로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일제 말기까지도 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밤등지** [터] 밤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현재는 밤나무가 없다.

**사향봉** [산] → 삼형제바위

**사향봉들** [들] 삼형제바위 주위에 있는 논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형제바우** [산] 원래는 봉우리가 네 개라 사향봉이라 불렀는데, 언젠부턴가 밑에 있는 하나는 봉우리가 아닌 산으로 취급해서 삼형제바우라 한다.

**솔버덩** [터] 안터에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금은 없으나 예전에 솔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당이 있었다.

**아래셋골** [골] 뒷골로 들어가며 첫 번째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반대골** [골] 다복상회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넓은 바위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골을 넘어 언덕에서 보면 안흥1,3리의 들이 보인다. 예전에 안흥3리의 들은 논이 아니고 콩밭이었다고 한다. 임진왜란 초에 의병 일개 중대가 진을 치고 있었는데, 하루는 경계를 보다가, 왜병들이 노란 복장으로 위장을 하고 오는 것으로 착각하여 총을 발사한 까닭에 의병의 위치가 노출되어 전멸되었다고 한다. 예전에 그 골에 들어가면 울음소리가 났다고 한다

**안터** [마을] 마을이 안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웃셋골** [골] 뒷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아래셋골 위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횡성말** [마을] ①예전에 강림이 영월군에 속해 있던 까닭에 가천리가 영월군과 횡성군의 경계를 이룬 마을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이곳에서 말이 횡사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상안리(上安里)

안흥 위쪽이 되므로 웃안흥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곶둔, 현저, 물안이, 정자골, 마람골을 병합하여 상안흥리(上安興里)로 하다가, 1941년 상안리로 고쳤다.

### [상안1리]

**곶둔이골** [골] 노인회관 뒤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옹골’, ‘옹둔곡’이라고도 한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관터** [마을] 예전에 관이 있던 자리로 공무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다가 쉬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무기를 들고 보초를 서는 병사도 있었다고 한다. 예전에 묘가 있었으며, 지금도 밭에서 깨진 기와가 나온다고 한다.

**논골** [마을] ①예전에 상안리에 논이 별로 없을 때, 이곳에 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답동이라고도 한다. ②원래 논이 세 마지기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소사리 등에 벼씨를 공급하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달밭골** [마을] 곶둔이골 안쪽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자리와 샷갯 등의 재료에 쓰이는 참갈을 많이 심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참갈’을 ‘달’이라 한다. 둔내로 통할 수 있으며 ‘월전동’이라고도 한다.

**답동(畓洞)** [마을] → 논골

**맥수동** [마을] → 보리소골

**배나무거리** [마을] 예전에 커다란 신배나무가 한 그루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6.25 직후에도 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주막이 여러 채 있었다고 하며, 배나무골이라고 표기하거나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 한다.

**배나무골** [마을] → 배나무거리

**보리소골** [마을] ①예전에 이곳에 보리를 많이 심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병자 정축년에 흉년이 들어 보리씨를 소사리 등에 공급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맥수동'이라고도 한다.

**삿갓봉** [산] 정자골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산봉우리가 삿갓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에 풋대가 있다고 한다.

**숨소골** [골] 두메사슴목장 뒤쪽으로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오두재골** [골] 영월군 운학으로 넘어가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다섯 개의 골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옹골** [골] → 곶둔이골

**옹둔곡** [골] → 곶둔이골

**월전동(月田洞)** [마을] → 달밭골

**재상바우골** [골] 중살인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정자골** [마을] 논골 위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①예전에 정자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정자동이라고도 한다. ②예전에 부자가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자동** [마을] → 정자골

**중살인골** [골] 안흥을 내려가며 오른쪽으로 있는 마지막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①중이 이 골에서 살인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예전에 중이 사는 골짜기라고 해서 '중산이골'이라고도 한다. 영랑리와 통한다.

**중산이골** [골] → 중살인골

**채바우골** [골] 상안2리를 가며 왼쪽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골에 바위가 있었는데 바위가 코처럼 길게 나왔다고 해서 '코클바위'라고도 한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코클바위** [골] → 채바우골

**풋대봉** [산] 노인회관 뒤 곶둔이골에 있는 봉우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풋대를 설치한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흥면에서 가장 먼저 풋대를 설치한 것으로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다.

[상안2리]

**가나골** [골] → 가는골

**가는골** [골] 큰골 안에 있는 골짜기 중 하나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작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돌탑골** [마을] → 돌토반이

**돌토반이** [마을] 문재를 올라가며 왼쪽으로 있는 골짜기 가리키는 것으로, ①이 곳에 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돌로 탑을 쌓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돌탑골’이라고도 한다.

**마람골** [마을] 학교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①말형상의 바위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예전에 마름이 살던 골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암골’, ‘마암동’이라고도 한다.

**마암골** [마을] → 마람골

**마암동** [마을] → 마람골

**무라니** [골] → 물안이골

**문재** [고개] 평창 방림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현재 터널이 뚫려 있다.

**문재골** [골] 문재로 통하는 골짜기라고 하여 붙여진 것으로, 현재 문재로 가는 42번 국도를 지칭한다.

**물안이골** [골] 현재 저수지가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①물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물이 많이 흘러서 골짜기가 물을 안고 있는 형상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③물 안쪽에 있는 골짜기라 붙여진 이름이다. 큰물안과 작은물안이 있다.

**밤나무골** [골] 마을 앞에 있는 골짜기로, 밤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송중지골** [골] 천수암 올라가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씨름터** [터] 장자덕이에 있던 터를 가리킨다. 예전에 약물을 먹으러 온 사람들이 씨름을 하던 터로, 장자덕이에 사는 갑부가 시합을 진행시켰다고 한다.

**약물골** [골] 장자덕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골에서 약물이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지말** [마을] 마을이 양지 바른 곳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터골** [골] 문재를 올라가며 오른쪽으로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는 이 골로 문재를 넘어 다녔다. 한편 예전에 그 골에는 음식을 끓일 수 있는 솥이 있었는데,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 솥에다 밥을 해먹고 씻어서 얼어놓으면, 뒤에 사람이 또 해먹고 씻어서 놓고 하였다고 한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작은물안** [골] 저수지 밑으로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큰물안보다 골이 작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장자덕** [터] 물안이골에 있는 곳으로, 예전에 갑부가 살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산에 넓은 버덩이 있다. 장자터라고도 한다.

**장자터** [터] → 장자덕이

**큰골** [골] 골이 깊어서 붙여진 골짜기 이름으로, 그 골의 길이는 약 30리 정도 된다고 한다.

**큰물안** [골] 저수지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저수지 밑에 있는 작은물안보다 골이 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꽃대봉** [산] 송중지골 안에 있는 산봉우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산 정상에 꽃대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헬기가 이착륙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고 한다.

**피나무골** [골] 약물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피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저동(峴底)** [마을] 문재 밑에 있는 옛 마을 이름으로, ① 예전에 통장이 있던 동네라 불리워진 이름이다. ②문재 밑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성산리(城山里)

원래 둔내면 영랑리에 속해 있던 양지말, 하영 두 자연부락이 1973년 7월 안흥면으로 편입되면서 성산리로 명명되었는데, 성산리라는 이름은 산이 마을을 성처럼 감싸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지은 것이다.

**고늑골** [골] 질곡을 달리 부르는 이름으로 그 이름에 대한 내력은 모른다.

**곧음골** [골] 하영에 있는 골짜기로, 가파르고 곧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덕어두** [산] → 덕어머리

**덕어머리** [산] 양지말 뒤에 있는 덕어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산이 소사리에 있는 덕고산의 머리에 해당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덕어두’라고도 한다. 마을 분들은 덕어산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덕어산** [산] → 덕어머리

**도장골** [골] 하영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화전을 할 때 이 골에 있는 사람들은

도장방에 곡식을 쌓아 놓고 지낼 정도로 여유 있는 생활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골은 콩, 팥이 잘 된다고 한다.

**뒷골** [골] 마을 뒤에 있는 골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밤나무골** [골] 하영에 있는 골짜기로,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이 골에 만석꾼인 큰 부자가 살았으며, 얼마 전까지도 깨진 기왓장이 나왔다고 한다.

**소사리골** [골] 양지말에서 소사3리를 거쳐서 소사1리로 통하는 골짜기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현재는 도로가 포장되어 있다.

**소죽골** [골] 하영에 있는 골짜기로, 역사적 인물인 이인거와 그 부하들이 이 골에서 훈련을 하면서 소죽, 말죽을 끓여서 주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신배나무골** [골] 큰 신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는 신배나무가 없다.

**썰기골** [골] 하영에 있는 골짜기로, 썰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자주 쪼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양지말** [마을] 둔내면 영랑리와 접해 있는 마을로, 양지 쪽에 있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움골** [골] 하영에 있는 골짜기로, 난리 때 이 골에서 움집을 짓고 살면서 난을 피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도 움터가 있다고 한다.

**정골** [골] 예전에 보습을 만들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지금도 밭에서 가끔 쇳물 굳은 것이 나온다고 한다.

**진골** [골] 하영에 있는 골짜기로, 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질곡** [골] 하영에서 지구2리 상터를 질러가는 골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늑골'이라고도 한다.

**하영** [마을] 성산리가 둔내면 영랑리에 속해 있을 때, 영랑리의 맨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소사리(所思里)

원래 현감(縣監) 정우주(鄭宇柱)의 '애민선정비(愛民 善政碑)'를 세우고, 그를 사모하는 뜻으로 소사비리(所思碑里)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갈골, 골말, 날근터, 동막골, 둔지말, 물골, 버덩말, 태오지를 병합하여 소사리라 하였다.

## [소사1리]

**낮은터** [마을] 삼성포 서남쪽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내력은 모른다.

**높은터** [터] 예전에 마을이 있을 때, 주위 마을보다 높은 곳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지금은 집이 없다.

**당산** [산] 당이 있어서 붙여진 산 이름으로, 이곳에 묘를 쓰면 마을에 재난이 온다고 하여 현재도 이곳에는 묘를 안 쓴다. 또 하양, 빨강, 노랑, 파랑 네 가지 색의 흙이 나온다고 한다.

**덧재** [고개] 안흥으로 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물골** [골] 지구리로 통하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치 말이 물을 먹는 형국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 예전에는 물길 따라 집들이 많았다고 한다.

**버딩말** [마을] 다른 마을보다 넓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지당골** [골] 물골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없다.

**삼상포** [마을] → 삼성포

**삼성포** [마을] 마을 형국이 좋아서 묘를 쓰면 세 정승이 나올 자리가 있다고 조선 중기 때 도승이 지은 것이라 한다. ‘삼상포’라고도 한다. 일설에 의하면 현재 회관 앞에 못이 세 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망가뜨려서 삼정승이 못 나오고 있다고 한다.

**새말** [마을] 새로 형성된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송한리재** [고개] 송한리로 넘어가는 고개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안장봉** [산] 봉우리가 말안장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여우재** [재] 지구1리와 통하는 길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재에 여우가 많이 나타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동지골** [골] 송한리와 통하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조선시대 때 원주 원씨가 이 골에서 귀리 천 석을 생산하여 나라에서 동지라는 벼슬을 받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점심터골** [골] 난리 때 이 골에서 점심을 먹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말** [마을] 소사리 중심에 있는 마을로, 마을이 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약 60호 가량이 살았으며, 이 곳 물이 약물이어서 멀리서 찾아와 물을

마시곤 했다. 예전에 못이 세 개가 있었다.

**피난터** [터] 점심터골 안에 있는 곳으로 난리 때 이 곳으로 피난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화랑엿터골** [골] → 화랑터골

**화랑터골** [골] 점심터골 너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화랑엿터골’이라고도 한다.

## [소사2리]

**골말** [마을] 골짜기에 마을이 있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덕고산** [산] 마을 앞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전설에 의하면 덕고산 자락인 현천3리 배바우에 어떤 사람이 묘를 썼는데 사유(四乳)인 후손이 태어났다고 한다. 四乳는 성인군주로 불리는 중국의 문왕이 처음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그 四乳를 갖고 태어난 후손은 누군지는 몰라도 크게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버덩말** [마을] 버덩에 마을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본부락** [마을] 덕천초등학교 주변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중심이 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소구용골** [마을] 둔내로 넘어가는 곳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소구용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쇠경골** [마을] 이 골에서 장님이 살면서 침을 놓고 점을 쳤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영랑이골** [골] 소사3리로 내려가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둔내면 영랑리로 통하는 길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 소사3리와 성산리에서는 ‘소사리길’이라 부른다. 현재 도로가 포장되어 있다.

**갓나무배기** [마을] 갓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지금 다섯 가구가 있다.

**재집말** [마을] 예전에 큰 부자가 기와집을 짓고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막거리** [마을] 현재 덕천초등학교 앞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마방, 주막, 숙박시설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횡성장과 둔내장을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막이 여러 집이 있었다고 한다.

## [소사3리]

**갈골** [마을] 소사3리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곳에 같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노동’이라고도 한다.

**노동(蘆洞)** [마을] → 갈골

**다란고개** [마을] 현재 회관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넘어 다니던 고개가 있었음.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막타골** [골] → 막투골

**막투골** [골] 추나무토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유래는 모른다. ‘막타골’이라고도 한다.

**소사리길** [골] 소사2리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것으로, 소사리와 통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포장되어 있다. 소사2리에서는 ‘영랑이골’이라 부른다.

**안갈골** [마을] 덕고산 밑에 있는 마을로, 갈골 본부락 안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골** [골] 진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짧고 좁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중고개** [고개] 막투골 아래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중간에 있는 고개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진골** [골] 안갈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주위의 골보다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추나무토골** [골] 작은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피난터** [터] 예전에 사람들이 피난을 했던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소사4리]

**동박골** [마을] 소사 휴게소 건너 쪽 응달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동백 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뒷말** [마을] 마을이 고개 너머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이땀** [마을] → 셋땀

**셋땀** [마을] 뒷말, 옷말, 동박골 사이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아래태오지** [마을] 마을이 태오지 아래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여우재** [고개] 안흥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여우가 많이 나타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웃말** [마을] 마을이 위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위태오지** [마을] 마을이 태오지 위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윗말** [마을] → 웃말

**태오지** [마을] 소사4리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①마을이 다섯 골짜기로 이루어져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다섯 곳의 좋은 명당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송한리(松寒里)

①산속 골짜기에 마을이 있으므로 속안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송한이 되었다.  
②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창, 송내골, 장자골을 병합하여 송한리라 하였다.

**달부리고개** [고개] → 달부리재.

**달부리재** [고개] 아랫말에서 중간말을 거쳐 장자터로 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달부리고개’라고도 한다.

**동창골** [골] 소쩍새마을에서 지구리쪽으로 통하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①동쪽으로 골이 형성되었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②예전에 지구리에 동창이 있던 것에 연유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마을 뒤에 있는 골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골이 막혀 있다.

**봉호뚝** [산] → 봉화봉

**봉화봉** [산] 아랫말 앞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봉화를 하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도 와편이 나온다고 한다. ‘봉호뚝’이라고도 한다.

**삿갓소** [소] 아랫말 안에 있는 소(沼)를 가리키는 것으로, 소 모양이 삿갓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설통바우골** [골] 자작나무골 옆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통을 많이 해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성가매골** [골] 아랫말 안에 있는 골짜기 중 하나로, 성씨 성을 가진 사람이 그곳에 묘를 써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도 봉분이 두 개가 있다고 한다.

**실미재** [고개] 안흥4리와 송한리 경계에 있는 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안흥을 실미라고 부른 까닭에 붙여진 이름이다.

**아랫말** [마을]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고 붙여진 이름이다.

**아랫골** [골] 안흥 중고등학교로 내려가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이 골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 안흥에서는 ‘소라니골’이라 부른다.

**양지땀** [마을] → 양지말

**양지말** [마을] 장자터 양지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양지땀’이라고도 한다.

**움골** [골] 아랫골 안에 있는 골짜기 중 하나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골에서 움집을 짓고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동지골** [골] 소사리로 통하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내력은 모른다. 소사1리에서는 원동지골이라고 한다.

**음지땀** [마을] → 음지말

**음지말** [마을] 장자터 응달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음지땀’이라고도 한다.

**자자봉** [산] 지구리쪽으로 있는 산봉우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자작나무골** [골] 샷갓소 옆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골에 자작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장자터** [마을] 현재 소쩍새마을이 있는 자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곳에 부자가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터** [터] 중간말에서 뒷골로 넘어가는 길에 송한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지금도 연못이 있던 자리는 남아있다.

**중간땀** [마을] → 중간말

**중간말** [마을] 장자터 아래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이 중앙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중간땀’이라고도 한다.

**질골** [골] 지구리와 통하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재** [고개] 송한리 공동묘지가 있었던 자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재를 넘으면 줄봉을 거쳐 오원저수지로 통한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 안흥리(安興里)

조선시대 때 안흥역(安興驛)이 있었으므로 안흥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

역 폐합에 따라 웃거리, 말무덤이, 여심동, 관말, 새재, 다리골, 단지골, 큰골을 병합하여 안흥 아래가 된다고 하여 하안흥리(下安興里)라 하다가, 1937년에 안흥리로 고쳤다.

## [안흥1리]

**강산골** [골] 큰다리골 안에 있는 골짜기 중 하나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유래는 모른다.

**골말** [마을] 시장 뒤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이 골짜기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관말** [마을] 면사무소가 있는 안흥의 중심지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조선시대 때 여행자를 위하여 설치한 역(驛)과 원(院)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관촌’, ‘역촌’, ‘장터’라고도 한다. 옛날에 이곳 역과 원에서 관리하던 말이 죽으면 안흥4리 말무덤이에 묻었다고 한다.

**관촌** [마을] → 관말

**까투리골** [골] 작은다리골 안에 있는 것으로, ①까투리라는 먹는 풀이 많아서 붙여진 것이다. ②까투리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리골** [골] 노인회관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짜기가 사람 다리처럼 양쪽으로 벌어져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다리골과 작은다리골이 있다. ‘원골’이라고도 한다.

**도장골** [골] 큰다리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유래는 모른다.

**둔지말** [마을] 시장 뒤 다리골 주위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군노가 주둔했던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척바위** [바위] 웃거리 냇가 산에 있는 것으로, 예전에 삼척에서 근무하던 원이 임기를 마치고 한양으로 가는데, 그를 따르던 기생이 이곳까지 따라와 돌아가도록 종용하자 이 바위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수더지골** [골] 큰다리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유래는 모른다.

**역촌** [마을] → 관말

**웃거리** [마을] 안흥초등학교 주위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구1리, 상안1리와 접해 있다. 안흥 본부락 위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골** [골] → 다리골

**작은다리골** [골] 다리골을 올라가며 오른쪽으로 있는 골짜기를 가리킨다.

**중사리골** [골] 안흥초등학교 앞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곳에서 중이 살인을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중살인골’이라고도 한다.

**중살인골** [골] → 중사리골

**취계미골** [골] 초등학교 앞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유래는 모른다.

**큰다리골** [골] 다리골을 올라가며 왼쪽으로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작은다리골에 비해서 골이 깊고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골에는 수더지골, 도장골, 강산골이 있다.

## [안흥2리]

**거리뜰** [마을] 단지골 밑 길옆으로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길가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공동묘지골** [골] 안흥모텔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공동묘지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노적바우** [바위] 숫돌바우골 앞에 서있던 바위로 노적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병자년 홍수 때 그 바위가 넘어져서 지금은 그 흔적을 찾기 어렵다.

**논띠기** [골] 예전에 단지골에는 논이 없었는데, 이곳에 유일하게 논이 있어서 붙여진 골짜기 이름이다.

**단지골** [마을] ①지형이 마치 단지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예전에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에도 이 마을은 단지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당지골** [골] 단지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당이 있는 골짜기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없다.

**도장골** [골] 단지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뒤골** [골] 단지골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밀밭골** [골] 단지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밀밭이 있다고 해서 이름이다. 지금은 안 심는다.

**벼락바우골** [골] 공동묘지 너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있는 바위가 벼락을 맞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북골** [골] 단지골에 있는 골짜기로, 그 유래는 모른다. 웃북골과 아래북골이 있다.

**붕어소** [소] 단지골 앞 내에 있는 것으로, 이 소(沼)에 붕어가 많아서 붙여진 이

름이다. 지금은 논으로 변했다.

**살림터** [터] ①이곳으로 살림을 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이곳에서 사람을 죽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살인터’라고도 한다. 일제 때 말을 묻었다고 한다.

**살인터** [터] → 살림터.

**새터** [터] 신배골 너머에 있던 동네로 새로 터를 닦은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솔골** [마을] 폐교된 초등학교 앞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소나무가 많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숫돌바우골** [골] 당지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숫돌로 쓸 수 있는 돌이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배골** [마을] 새터 초입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큰 신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선봉** [산] 매화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신선들이 이 곳으로 놀러와서 바둑을 두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지워졌지만, 바둑판을 그려놓은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

**여심동** [마을] 폐교된 초등학교 위쪽에 있는 마을로, 그 유래는 모른다.

**작은덕이** [골] 단지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큰덕이 옆에 있는 것으로 밭 한 폐기가 큰덕이 것보다 작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재피골** [골] 진소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옷재피골과 아래재피골이 있다. 예전에 안흥3리 사람들이 이곳으로 나무를 하러 많이 왔다고 한다. 고사리가 많이 난다고 한다. 그 이름의 유래는 모른다.

**전장골** [골] 안흥 주유소 뒤 절이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옛날에 이 곳에서 전쟁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재** [고개] 안흥에서 우천으로 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중사리골** [골] 단지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그 유래는 모른다. 큰중사리골과 작은중사리골이 있다.

**진소** [소] 단지골 마을 앞에 있는 소(沼)를 가리키는 것으로, 소가 길어서 붙여진 이름.

**큰골** [골] 신선봉 밑에 있는 골짜기로, 넓고 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덕이** [골] 단지골 안쪽에 있는 골짜기로 밭 한 폐기가 만평이 되는 것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폐기’라고도 한다. 이 곳을 넘어가면 강림의 수레넘이골과 통한다.

큰떼기 [골] → 큰덕이

### [안흥3리]

**골새재** [마을] 곡초현(谷草峴)이라고도 하며, 새재에서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라골** [골] 큰구라골, 작은구라골이 있으며 골이 깊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굴앞골’이라고도 한다.

**굴앞골** [골] → 구라골

**너머땀** [마을] → 너울땀

**너울땀** [마을] 마을이 고개 너머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너머땀’이라고도 한다.

**덕새재** [고개] 월현으로 넘어가는 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재가 높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덕초현’이라고도 한다.

**덕초현(德草峴)** [고개] → 덕새재

**마구할땀바위** [바위] 소막골에 커다란 바위 위에 또 바위가 얹혀 있는데, 마구할땀이 그 바위를 갖다가 놓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말똥바위** [바위] 현재 논으로 개간하여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으나, 바위 모양이 말의 똥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탕관바위 밑에 있었다.

**박외과농장** [들] 새재에서 가천리로 가는 도로 변에 있는 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병자년 홍수 때 자갈밭이던 것을 박외과 원장이 개간하여 주인이 되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밭조당이** [터] → 주막거리

**불당골** [골] 예전에 그 골에서 불이 자주 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별새재** [마을] ①별이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②마을 지형이 평평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빈두골** [골] 산양봉에 있는 골짜기로, 경사가 심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빙애재** [고개] 겨울이면 다른 지역보다 빙판이 잘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큰빙애재 작은빙애재가 있다.

**산양봉** [산] 삼형제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산양이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양봉’이라고도 한다.

**삼형제바위** [산] 가천리와 경계가 되는 내에 있는 산으로, 산봉우리 세 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새재** [마을] 예전에 풀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초현(草峴)이라고도 한다. 안흥3리 전체를 가리킨다. 마을 지형이 소형국이라 한다.

**산양봉** [산] → 산양봉

**선바우골** [골] 큰선바우골과 작은선바우골을 함께 가리키는 것으로, 골 안에 바위가 서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설통바우** [바위] 바위 모양이 설통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막골** [골] 숫가마골 아래에 있는 골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소에게 풀을 먹이려고 이곳에 갔다가 매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속땀** [마을] 새재 본부락 안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쇠막터** [터] 소막골 안에 있는 터로, 소가 풀을 먹고 내려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숫가마골** [골] 예전에 이 골에서 숫을 구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양골** [골] 큰골 위에 있는 골로 덕새재 넘어가는 곳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킨다. 풀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외양골’이라고도 한다.

**외양골** [골] → 오양골

**작은가는골** [골] 큰가는골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짧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막거리** [터] 새재 입구 도로변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주막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밥보당이’라고도 한다.

**지둔덕** [고개] 새재 마을 앞에 있는 언덕을 가리키는 것으로, 땅이 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는 이곳에서 아낙들이 달맞이를 하였다고 한다. 이 곳 지둔덕 앞에 있는 산에 아침 안개가 끼면 삼 일 내에 비나 눈이 온다고 한다.

**초현(草峴)** [마을] → 새재

**큰가는골** [골] 골이 깊고 가늘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골] 오양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탕관바우** [바위] 바위가 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호랑바우** [바위] 불당골 안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바위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안흥4리]

**갈밭골** [골] 말무덤이에서 송한리를 올라가며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갈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것을 채취하여 자리나 샷갓을 만들었다고 한다.

**갈밭머리** [골] 갈밭골 초입을 가리키는 것이다.

**뒤골** [골] 말무덤이에서 송한리를 올라가며 왼쪽으로 첫 번째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분동(馬墳洞)** [마을] → 말무덤이

**마분리(馬墳里)** [마을] → 말무덤이

**말무덤이** [마을] 안흥4리 2,3반에 속하는 마을이다. 마을 입구에 커다란 무덤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말을 묻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 때 ‘실미’, ‘실미동’이라고도 했으며 ‘마분리’, ‘마분동’이라고도 한다.

**빠다지골** [골] 소라니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내력은 모른다. 빠다귀골이 변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다.

**산지당골** [골] 소라니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는 산지당이 없다.

**설통바위골** [골] 소라니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자작나무골 옆에 있다. 설통을 많아 놓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라니골** [골] 지금은 이곳으로 사람이 다니지 않으나 예전에는 많이 다니던 길로, 송한리와 통하는 골짜기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송한리에서는 ‘아랫골’이라고 부른다.

**송한리뒤골** [골] 소라니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송한리 뒤에 있는 골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실미** [마을] → 말무덤이

**실미동** [마을] 말무덤이를 가리킨다. 실미의 한자 표기를 실미(實美), 실미(實味) 등으로 하여 어느 것이 바른 것인지는 모른다.

**실미재** [고개] 현재 말무덤이에서 송한리로 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말무덤이를 실미라고 불렀던 관계로 붙여진 이름이다.

**췌기골** [골] 송한리를 올라가며 왼쪽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①췌기가 많아서 이름이 붙여졌을 것이라는 의견 ②실미재와 용소골 사이에 있는 골이라 그러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양지땀** [마을] 3반에 속하는 마을로, 말무덤이에서도 해가 오래 머무는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서낭당이 있었다고 한다.

**양지말** [마을] 안흥중고교 앞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양지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흥4리 1반에 속한다.

**용소** [소] 말무덤이 양지땀 마을 앞 내에 있는 것으로, 지금은 그리 깊지 않음

나, 예전에는 명주 한 꾸리가 다 풀려도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 깊었다고 한다. 이 소(沼)에서 용이 하늘로 등천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용소골** [골] 용소 위에 있는 골짜기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용소보** [보] 용소에 있는 보를 가리킨다. 보 옆으로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예전에 정석태, 정석우 두 형제가 이 바위에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을 내어 안흥4리의 눈에 물을 대었다고 한다. 지금도 남아 있으나 수로가 새로 만들어진 관계로 이 곳을 통해 물을 대지 않는다.

**자작나무골** [골] 소라니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자작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중간땀** [마을] 말무덤이에서 가운데 있는 마을을 가리킨다. 안흥4리 2반에 속한다.

**지방바우골** [골] 소라니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 지구리(池邱里)

마을에 못과 두둑이 있으므로 못두둑 또는 지구(池丘)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터, 솔안말, 구새들, 창말을 병합하여 지구리라 하였다.

### [지구1리]

**대골** [골] 골이 깊고 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덧재** [고개] 창말에서 소사리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는 것으로, 그 유래는 모른다.

**동창(東倉)** [마을] 조선시대 때 무기고가 있던 관계로 붙여진 이름으로, 현재는 '창말'이라고 부른다.

**동창다리** [다리] 예전에 동창 앞에 있던 나무로 만든 다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비가 많이 오면 배로 건너 다녔다고 한다.

**메네버덩** [마을] 성산리와 접해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메씩이라고 먹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못두둑** [마을] 지구리의 원래 이름으로 못과 두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물골** [골] 메네버덩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소사1리에서 물이 많이

내려와서 붙여진 이름. 예전에 메네버딩 사람들은 이 골을 통해서 우천면 하궁리로 다녔다고 한다.

**방치골** [골] 창말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버딩말** [마을] 지구1리에서 가장 넓은 곳에 위치한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선바우** [바위] 선바우골 초입에 있는 바위가 서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입암(立岩)이라고도 한다.

**선바우골** [마을] 창말 아래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입구에 선바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솔밭말** [마을] 마을에 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서낭당이 있었는데, 새마을운동 때 없어졌다고 한다.

**앞남산** [산] 버딩말 앞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남쪽에 있는 산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봄에 꽃이 피면 줄에 빨래를 널 것과 같이 아름답다고 해서 이 산을 빨래줄 형국이라 한다.

**움터골** [골] 물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응달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웃말** [마을] 버딩말을 중심으로 위에 있는 마을이라고 붙여진 이름이다.

**짜애바위** [바위] 메네버딩에 있는 바위로, 바위가 쪼개져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는 이곳으로 수로를 만들어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창말** [마을] 조선시대 때 무기고인 동창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지구2리]

**가재나무골** [골] 웃상터 응달쪽(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의 유래는 모른다.

**구새들** [마을] 구새바우 주변의 마을과 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구새바위의 구새를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초평’이라고도 한다.

**구새바우** [바위] 구초평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①예전에 구새라는 새가 이 바위 암벽에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바위가 아홉골이 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최근 도로 확장 공사로 바위가 없어졌다.

**구초평** [마을] → 구새들

**독장골** [골] 주정골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의 유래는 모른다.

**물안골** [골] 영랑이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유래는 모른다.

**미골** [골] 이 골짜기에 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범낭골** [골] 이 골짜기에 범이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상대동** [마을] → 상터

**상전동(桑田洞)** [마을] 상터 맨 위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뽕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상터** [마을] 지구2리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지구1리 위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마골** [골] 물안골과 절골 사이에 있는 골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소산터** [골] 피아골과 큰재나무골 사이에 있는 골을 가리는 것으로, 이곳에서 소를 살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바우가 있다.

**아래상터** [마을] 학교를 중심으로 아래에 있는 부락을 가리키는 것으로, 상터에서도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안흥재** [고개] 상터를 가면서 오른쪽(응달쪽) 골짜기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고개를 넘어가면 안흥을 갈 수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영랑이골** [골] 학교 위 양지쪽으로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둔내면 영랑리와 통하는 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오개골** [골] 학교 위 양지쪽으로 첫 번째 있는 골(큰오개골)과 두 번째 있는 골(작은오개골)을 함께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웃상터** [마을] 학교를 중심으로 위에 있는 마을을 가리는 것으로, 상터에서도 위에 있는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골** [골]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것으로, 웃상터 양지쪽(왼쪽) 마지막 골을 가리킨다. 전설에 의하면, 절골에는 굴바우가 있는데 절에 있던 금부처 등 많은 보물을 이 바위 안에 넣고 돌문으로 닫은 까닭에 아무도 그 출입문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주전골** [골] 예전에 이 골에 사는 사람이 돈 만드는 틀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응달쪽 첫째 골을 가리킨다. ‘주정골’이라고도 한다.

**주정골** [골] 예전에 이 골에 사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주정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전골’이라고도 한다.

**체골** [골] 상터 입구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골에 체장사가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재나무골** [골] 소산터와 화랑바우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의 재만 넘으면 방림면 계촌이 나온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터골** [골] 현재 양계장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터가 좋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예전에 서낭당도 있었다고 한다.

**피아골** [골] 안흥재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전쟁 때 이 곳에서 전투가 벌어져 피를 흘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화랑바우** [골] 큰재나무골과 가재나무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①이 골에 비석의 서너 배 되는 바위가 서 있어서 붙여진 골짜기 이름이다. ② 화랑들이 와서 놀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제보자]

(송익섭, 남, 63세, 가천리 토박이)

(조선기, 남, 64세, 상안1리 토박이)

(권상준, 남, 72세, 상안1리 토박이)

(김익순, 남, 79세, 지구리 태생으로 7세에 상안1리로 이주)

(이우명, 남, 72세, 상안2리 토박이)

(최상옥, 남, 80세, 성산리 토박이)

(주경섭, 남, 73세, 성산리 토박이)

(이기환, 남, 65세, 갑천 태생으로 4세에 소사1리로 이주)

(최종근, 남, 68세, 소사2리 토박이)

(양한모, 남, 60세, 소사3리 토박이)

(홍기만, 남, 76세, 강릉 태생으로 7세에 소사4리로 이주)

(신완섭, 남, 72세, 계촌 태생으로 50년 전에 송한리로 이주)

(김복기, 남, 63세, 평창 태생으로 40년 전에 송한리로 이주)

(정화찬, 남, 69세, 안흥1리 토박이)

(장윤식, 남, 65세, 안흥2리 토박이)

(오구영, 남, 72세, 안흥3리 토박이)

(오봉환, 남, 57세, 안흥3리 토박이)

(곽태순, 남, 49세, 안흥3리 토박이)

(홍순조, 남, 64세, 평창 태생으로 4세에 상안리, 42년 전 안흥4리로 이주)

(이경영, 남, 67세, 지구1리 토박이)

(서대원, 남, 64세, 둔내 태생으로 30세에 지구1리로 이주)

(이대섭, 남, 67세, 상안리 태생으로, 5세에 지구2리로 이주)

(김윤식, 남, 56세, 지구2리 토박이)